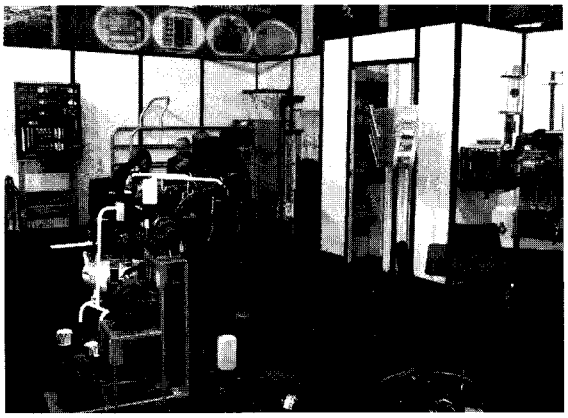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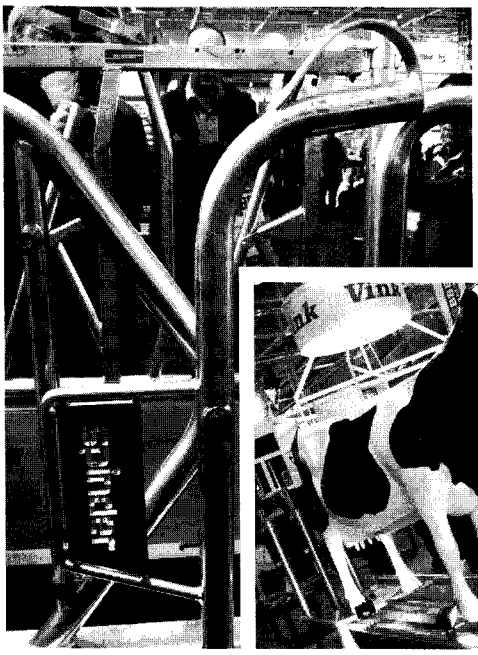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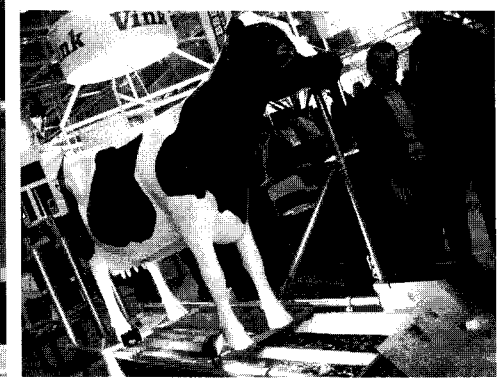
세계 선진축산시설의 수준, 2010 하노버 축산박람회(Euro Tier 2010) 현장에서 만나다

– 2년마다 열리는 첨단 축산시설의 각축전 –

취재 및 정리 : 이용일



세계 최대의 종합축산박람회인 유로티어가 독일 하노버 전시장(Hannover Exhibition Ground)에서 11월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됐다. 이에 박람회 공동주관단체의 단체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박람회 시찰단은 오는 2011년 9월 21일에서 24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1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1)의 해외 부스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업계 동향 파악 등을 위해 하노버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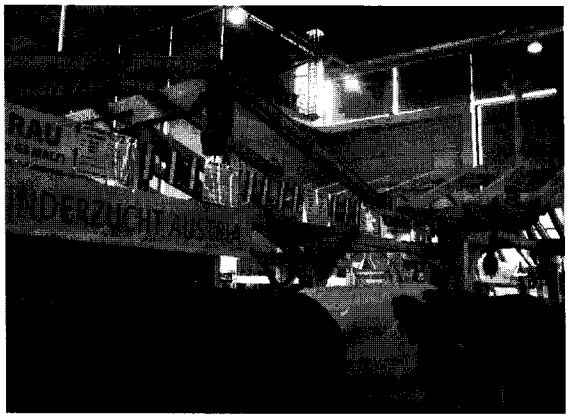
유로티어는 독일 농축산협회인 DLG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양계, 양돈, 낙농분야 종합축산박람회로, 관련 기자재, 약품, 사료 품평회 행사 등이 선보인다. 개최규모만 해도 121,000㎡의 전시면적(9동의 전시관, 축종별 전시관 운영)을 자랑하는데, 올해는 1,900여개(49개국, 국내 8개업체)의 업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12만명의 전세계 참관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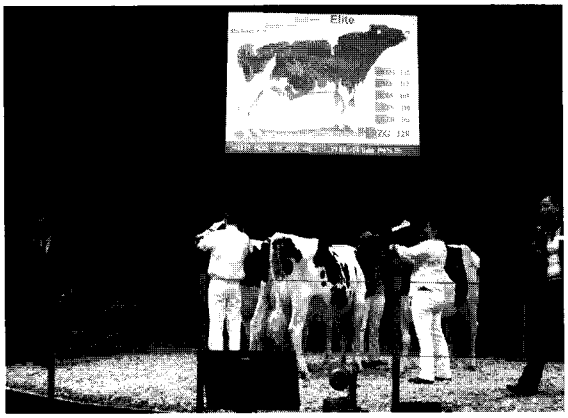
참가 전시국 중에는 당연히 주최국인 독일이 1,161개사(60%)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국인 네덜란드(147개사), 프랑스(92개사), 이탈리아(59개사), 덴마크(56개사)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적지않은 부스참여를 보여 그야말로 국제 전시회로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홍보부스를 비롯, 다연산업, 엔텍바이오, 인터히트 등 총 8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축산 신기술을 해외에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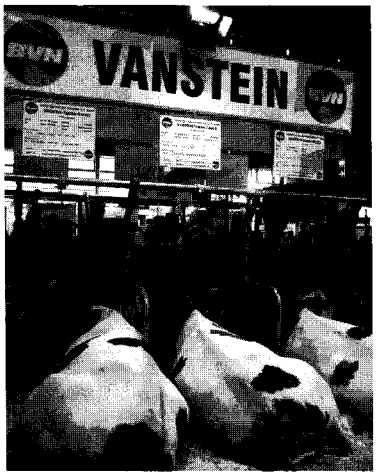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친환경 사양, 편리한 작업 관리, 가축 친화적 사양을 목표로 한 시설들의 소개와 축분과 부산물 등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시설의 효율성 증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사실 이 모든 사항들이 직간접적으로 양축농가의 수익향상과 연관이 되고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난 요즘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서인지 행사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다양한 축종의 전시회지만, 유럽에서 낙농이 축산업을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전시관 행사 역시, 단연 낙농 부문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전시면적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많은 낙농가들이라면 한번쯤 상상해보는 꿈의 시설이자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는 착유로봇 품목만 해도







참가업체들마다 보이지 않는 경쟁열기가 가득했다. 착유시간의 단축을 강조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착유시간 대비 유량을 강조하기도 하고 유방질병 자가진단 조치 기능과 물이나 전력소비의 효율을 강조하며 젖소 및 환경친화적인 장점을 들어 판매를 유도하는 제품들도 있었다. 또한 착유우 건강의 기본이 되는 바닥설비나 발굽관리 시설 등이 소의 생리에 기초한 재질로 제작되어 관련 업체들마다 자사제품이 더 환경친화적이고 개체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독식을 방지하는 한편, 사료의 소실을 줄이고 저소음으로 작동함으로써 기존의 설비를 좀더 개선한 자동목걸이도 눈길을 끌었고 기후환경에 견고한 송아지방 시설 등도 관심을 끌었다. 또한 행사장 내 한편 무대에서 각지방 그랜드챔피언을 입상한 종축들이 열띤 분위기 속에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도 볼거리였다.

대체로 많은 부스들의 홍보 형태를 보면 자유롭고 능동적이다. 이는 다른 국제 전시행사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점이지만 국내에도 축산박람회를 통해 세계적 양계 · 양돈업체인 Dutchman을 통해 선보인 바 있는데 작은 원형테이블에 상담자와 바이어가 맥주나 소프트드링크를 마시며 1:1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부스마다 간단한 리프레쉬먼트를 제공하는 형태 외에도 각각의 홍보관마다 식당이

마련되어 방대한 전시장에서 방문객들이 관람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가족단위로 오는 방문객들이나 비관련업계 관람객들이 따분해하지 않도록 동물캐릭터를 소재로 한 즐길거리 제공도 군데군데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한 국제 선진기술의 대잔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유럽인 우대의식에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부스안 제품 곁으로 다가가면 친절한 얼굴로 상담에 응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부스 입구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제작된 브로슈어 조차 명함을 건네지 않고는 갖고 갈 수 없도록 제지하기까지 했다.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기술도용으로 유사품을 제조한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독일 지역특성상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이 덜하다는 북부지역 하노버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라 더 안타깝다.

한편, 2011 국제축산박람회 시찰단은 이번 박람회 개최를 담당한 하노버 농업국 책임자 칼 쉬뢰져(Karl Schlösser)를 만나 양국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125년간의 개최 전통을 갖고 있는 하노버 축산박람회는 유럽 내 축산업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가들의 호평을 바탕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왔다"며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집약된 자체 기술과 정보화를 기반으로 더욱 국제적인 전시행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